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컬리지	기간	2018.1.14.~2018.2.4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파견대학은 보통 홈스테이에서 버스나 걸어서 20-30분이면 간다. 규모는 우리학교보다는 작지만 시설은 깨끗하다. 랑가라 대학은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특히 다양한 색깔의 터번을 쓴 남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점심시간에 사먹는 사람들보다는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경우가 많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다음 수업을 기다리거나 숙제를 하거나 도시락을 먹는 학생들이 많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수업내용은 크게 1주는 english essentials 2주 cultural studies 3주 global english를 배운다. 수업방식은 영어회화 수업과 비슷하다. 15명 파견학생들과 같이 들었다. 랑가라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줄 알았는데 한국인 끼리만 수업을 들은 것이 아쉬웠다. 과제는 저널쓰기, 홈스테이와 인터뷰 하기, 토론준비 등 간단하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학교에서 한 활동

activity with langara students- 의외로 나는 이 활동이 가장 재미있었고 대화할 때 가장 많은 영어를 쓴 것 같다.

curling-나는 컬링이 비인기 종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많은 노인분들이 이 스포츠를 즐겨하였다. 또 많은 레스토랑을 들어가보면 주로 보는 티비 프로그램이 하키나 컬링이었다 그만큼 캐나다에서는 인기 있는 스포츠다. 그냥 돌만 던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룰이 있고 돌이 너무 무거워서 던지는데 힘들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다가올 동계올림픽에 컬링 경기도 챙겨볼 예정이다.

museum of vancouver- 우리나라 박물관을 생각하며 되게 지루할 줄 알았는데 년도별 캐나다의 모습과 역사적인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 아주 흥미로웠다.

granville island-이 활동이 가장 아쉬웠다. 컨테이너박스 같은 건물에 귀여운 상점들이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사동 같았다. 그런빌에 있는 시장이 그나마 볼만 했다. 시장 안에 파는 크램차우더 정말 맛있다.

vancouver aquarium-제주도에 있는 아쿠아리움보다는 규모가 작았다. 그래도 볼거리는 많았다. 다양한 해파리 종류를 볼 수 있다. 야외에 있는 수달의 울음소리는 잊을 수 없었다... 운이 좋으면 펭귄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snowshoeing- 이 활동을 하고 난 뒤, 난 몸살에 걸렸다..온몸을 퐁퐁 싸매고 가길 바란다. cypress provincial 쪽에서 스노우슈잉을 하였다. 처음 해보는 스포츠라 흥미로웠지만 난 스키를 더 타고 싶었다.

따로 했던 활동

victoria island- 벤쿠버와는 다른 느낌의 도시였다. 한국의 제주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다만 외박을 못해서 당일치기로 온 것이 가장 아쉽다. 왕복 6시간정도 걸려서 아침일찍 가는 것이 좋다.

capilano bridge- 일단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 (약 32불)하지만 대자연의 위엄을 느낄 수 있다. 캐필라노는 다운타운과 캐나다 플레이스에 무료 셔틀버스가 있으니 가는 방법은 꽤 수월하다. 입장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면 린캐년브릿지도 추천한다. 이 곳은 트와일라잇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english bay- 여름에 다시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다. 통나무가 여러개 있는데 너무너무 이쁘다. 벤쿠버에 있을 때 여러번 갔던 곳이다.

canada place- 비가 안올 때 가는 것을 추천한다 경관이 너무 이쁘다. 신기하게 바다인데 바다냄새는 안난다. 캐나다플레이스에 있는 플라이오버 (학생 약 23불)를 타봤는데 4D체험이다. 영상보면서 의자가 움직이고 냄새도 느낄 수 있고 비도 맞는다.

downtown 스케이트장(아트갤러리 앞)- 입장료는 무료, 장비는 4달러에 대여할 수 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vanier park-스탠리 파크.이런저런 파크 다 가봤지만 베니어 파크가 가장 제일 너무나도 이뻐다. 이 곳은 museum of vancouver와 매우 가까워서

	<p>박물관을 본 뒤 베니어 파크를 보면 좋을 것이다. 정말 적극추천한다 look out to of vancouver restaurant- 밴쿠버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이 곳에서 먹었다. 코스요리 약 50불이 었다. 맛은 괜찮았지만 고기는 역시 the kegs가 최고였다. 하지만 회전하며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며 경치 좋은 곳에서 먹으니 기분은 좋았다. 다만 조금 멀미가 날 수 있다.</p> <p>steam clock- 게스트타운을 걷다보면 발견할 수 있다. 정각이 되면 스팀으로 멜로디를 선사해주니 정각때 가는 것을 추천한다.(15분씩 스팀이 나오긴 한다) 스팀클락 옆에 많은 기념품샵이 있으니 여기서 사면 좋을 것 같아요</p> <p>아트 갤러리- 다운타운 쪽에 있는 박물관이다 화요일 5시이후에는 기부데이라서 5불 정도면 갤러리를 볼 수 있다. 직접 했던 활동을 아니지만 할 거 없을 때 가면 좋을 것 같다.</p> <p>쇼핑-다운타운, 리치몬드 아울렛, 롭슨스트리트,오크리지 몰등</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겨울에 밴쿠버는 레인쿠버다. 진짜 비가 자주 내린다. 날씨 앱을 보면 항상 비가 내린다고 나온다. 하지만 하나의 팁이 있다면 수업이 끝난 시각 오후3시쯤에는 비가 안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고 강수확률 40%이면 거의 비가 안올 확률이 높다. 다이소에서 접는우산 하나사서 쓰고 집을 때 버리고 오는 것을 추천하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오후 5시가되면 밴쿠버는 깜깜해진다. 그래서 캐나다에는 한국처럼 밤문화가 많이 없고 11시쯤이면 모든 상점,음식점 들이 문을 닫는 것 같다. 깜깜할 때 절대 차이나타운 쪽 가지 마세요.(20,29번 버스 정류장 쪽) 많은 drugs와 homeless들이 가득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0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 시설은 보통의 캐나다 가정집이다. 규칙이 있다면 샤워시간 10분이 내, 샤워 후 욕조주변에 물기를 닦아 내는 것, 이다. 또 저녁을 밖에서 먹는다면 오후4:30분까지 홈맘에게 알리는 것이고 몇시에 집에 들어가는지도 말해주면 더 좋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0 ) 외부식당 ( 0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 아침은 홈스테이에서 주로 먹었다. 보통 시리얼, 빵과 잼, 가끔 스파게티나 볶음밥,만두도 주셨다. 하지만 주로 시리얼이다. 질린다.</p> <p>점심- 점심은 홈스테이에서 싸준 것을 먹었다. 나는 주로 샌드위치였다. 1주 내내 샌드위치,2주부터는 격주로 샌드위치를 주시고 볶음밥과,누들을 주셨다.</p> <p>저녁- 저녁은 주로 밖에서 해결하였다. 홈스테이에서 저녁을 먹은 횟수는 약 4번정도 있던 것 같다. 밖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을 추천한다. 밴쿠버는 일본,중국,한국,그리스,캐나다,중동,인도,멕시코 레스토랑 등 다양하게 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46st 에 살고 있어서 49st의 49번 버스를 타고 통학하였다. 학교까지 약 20분 걸렸다. 밴쿠버는 교통과 도로가 정말 잘 되어있다. 또compass 카드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아마 학교에서 먼슬리패스라고 한달 패스카드를 나눠 줄 것이다. 다만 주말제외 평일 오후6시이전에 2존,3존을 갈 계획이라면 추가요금을 내야한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85만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항공료	1,372,900원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3,000원	사전 납부
식비	300,000원	주로 저녁식사
경비와 입장권비용	100,000원	캐필라노,플라이오버,빅토리아
쇼핑	450,000원	
예치금	200,000원	예치금
합계	2,455,9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외박금지, 각 홈스테이 마다 통금 유무가 있다는 것 알아주세요.</li> <li>2.보통의 교통비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니까 교통비는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아요</li> <li>3.수업이 생각보다 너무 지루했어요. 그렇지만 출석100이여야 2학점 인정이라서 꾸역꾸역 나갔습니다.</li> <li>4.빅토리아 아일랜드는 날씨 좋은 날 잡아서 꼭 가세요.</li> <li>5.날씨 앱을 보고 내일 강수비율이 40%면 비가 안 올 확률이 높아요</li> <li>6.접는 우산을 꼭 사세요. 다이소 같은데 가서 사고, 버리고 오면 좋아요</li> </ol>
--

- 7.오후3시 경에는 비가 안온 날이 빈번했으니 학교 끝나고 어디갈지 생각하면 좋아요
- 8.타미나 코치 싸게 사고 싶으면 무조건 리치몬드 아울렛으로 가세요.
- 9.110v 콘센트 준비하세요! 멀티탭도 가져가면 유용해요
- 10.홈스테이 선물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차,믹스커피,김 등)
- 11.옷은 조금만 들고가서 벤쿠버에서 쇼핑하는게 짐도 덜고 좋은 것 같아요
- 12.샴푸,치약,칫솔,바디워시,로션 등 나중에 짐되니까 3주만 쓸 것을 가져가면 좋아요, 현지에서도 조그만한거는 런던드럭스나 마트에서 다 파니까 굳이 챙길 필요 없어요.
- 13.헤어드라이기는 보통 홈스테이에 있고, 고데기는 가져오셔야되요 그렇지만 벤쿠버는 항상 비가 내려서 고데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서 그냥 앞머리 까고 다니는게 좋아요
- 14.컵라면 같은 건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굳이 챙길 필요 없고, 볶음 고추장은 꼭 챙기세요.
15. 방수되는 아우터를 입는 것이 좋아요.(현지 사람들 바람막이 같은거 많이 입고 다녀요) 벤쿠버에서 롱패딩은 너무 덥고 짐만 되요. 여러개를 꺼입으면 좋아요. 아니면 경량 패딩 같은 것도 좋아요.(후드집업,후드티,히트택,목도리 이렇게 입어도 벤쿠버는 안추워요!)
- 16.지갑은 가볍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걸로 가져가세요.(동전 넣을 수 있는 걸로)
- 17.노트북 굳이 챙길 필요 없어요!(ppt과제가 1번 밖에 없고 학교 컴퓨터 쓸 시간을 줘요)
- 18.환전은 50~70만원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부족하면 비자카드로 쓰면 되요(수수료 많이 안붙어요.700~1000원 정도 붙거나 안붙는 가게들도 많아요)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벤쿠버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기 때문에 인종차별 이런건 정말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착하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먼저 hello 라고 말해줄 정도로 친절하다. 또한 벤쿠버는 교통질서가 너무나도 잘되어 있다. 신호등이 없는 도보길에서도 사람이 건너면 모든 차들이 stop한다. 여기선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하지만 비가 많이 내려서 운치도 있고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다음에는 여름에 꼭 한번 오고 싶다.

길었다면 길었고 짧았다면 짧았을 3주, 나는 너무나도 짧고 아쉬웠다. 향후에는 교환학생으로 더 길게 머무르고 싶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교환학생 준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나도 꿈 같았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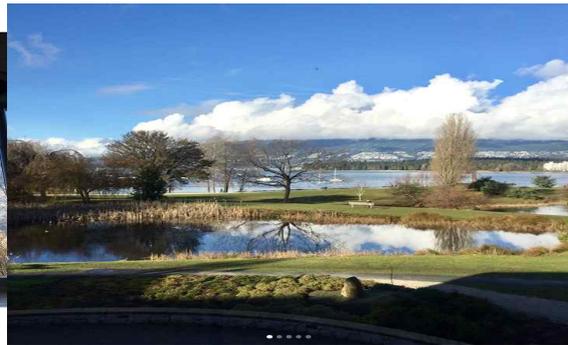
## 7.사진 보고서 (6장 이상)



<빅토리아 아일랜드>



<스팀 클락>



<베니어 파크>



<캐필라노 브릿지>



<룩아웃, 탐오브 벤쿠버레스토랑>



<스노우슈잉>